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 736. 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채널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gmail.com

사목회장 : 이 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탈출기 17,8-13

화답송: 시편 121(120),1-2.3-4.5-6.7-8 (◎ 2 참조)



(후렴) 우리 구원은 주님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을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제2독서: 2티모 3,14-4,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7,11-19

성가

- 입 당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 예물준비 513 면병과 포도주
- 영 성 체 161 성체를 찬송하세
- 파 건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허향연 소화데레사
조태연 안토니오
조태연 안토니오
박사훈 사모
김정수 베드로
황경희 루치아
이영화 요셉
문영현 Antonio
이정진 스테파노
박현진 스테파노
강해숙 프란체스카
강견대 마리아

생미사

박진수 형
양세안
백승훈 야고버
김기례 레지나
김기례 레지나
울뜨레아
서경자 율리아 팔순
고은경 모카,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훈배
여동건 루크(LUKE 생일축하)
김승연 안나
장철순 스테파노
박해화 도미니카
이영애 레지나
편윤아 루시아 가정
이정주 소화데레사(감사)

봉헌자

이명익
이민재 크리스티나
김성용 사도요한
김승범 프란치스코
김민경 소화데레사
황경숙 수산나
이미숙 안나
문홍빈 안셀모
선명희 노아
김보나
이기원 스테파노
이영혜 안젤라

봉헌자

김승범 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이명익
이명익
황경숙 수산나
안선정 마리안나
박아그네스, 알버트
박아그네스, 알버트
이지훈 아녜스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한동훈
김명희 글라리아
이명익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0월16일	이영노 율리안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조소연 마르티나	조소연 마르티나	김종선 비비안나	한서희 데레사	이성하 시몬
10월23일	김유화 데레사	김규현 프란치스코	임지수 마리아	임지수 마리아	이지훈 아녜스	한서희 데레사	김민규 요셉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고자 하는 분들
- 첫모임 : 10월 30일(일) 오전 11:00 교육관 3A
- 교리시작 : 11월 6일(일) 오전 11:00 교육관 3A
- 세례성사 예정일: 2023년 부활절
- 문의 : 2층 사무실 347.834.5784

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 대상 : 2019년 이전 세례받은 신자
- 첫모임 : 10월 30일(일) 오전 11:00 Korean Conf.
- 교리시작 : 11월 6일(일) 오전 11:00 Korean Conf.
- 견진성사 예정일: 2022년 성탄절
- 문의 : 2층 사무실 347.834.5784

미사 후 친교

- 일시 : 10월 16일 (오늘) 미사 후
- 장소 :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미 동북부 혼성 제2차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 장소 : 뉴저지 St. Paul John II Retreat Center
- 대상 : 세례받은지 2년 이상 된 신자로 본당 신부님 추천 필요
- 신청 : 본당 울뜨레아 간사, 10월 25일(화)까지

청년성서모임 2022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 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청년
- 모집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모임장소 : 다미아노 홀, 신청마감: 10월 29일(토)
- 개강미사 : 11월 12일(토) 오후 6시
- 문의 : 대표봉사자 김 야고보 201.912.7577
- 신청링크 : <https://forms.gle/iqP4g7iRn7eGgXfe9>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

- 하느님 마음에 드는 성가를 함께 노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 St. Augustine
- 문의 : 노 데레사 917-692-6447

➤ 혼인성사 감사

'송 명곤 대건안드레아, 고 은경 모니카' 부부: 혼인성사 감사
떡 봉헌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목주기도 성월 기도

◆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소서.
-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 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함께 이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아래성당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6pm~7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1:00am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 주일 11pm	교육관 3A
세례 견진 교리반	매주 주일 11pm	Korean Conf.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일 8:00am ~	Conf. Rm(2F)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일 11:00am ~	교육관 2D

2022년 10월 교향님 기도지향

모든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공동합의성을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투병 중이신 분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5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경희 (미카엘라)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올바른 청원"

루카 18, 1-8

"꾸르실료와 울뜨레야의 의미와 취지"

'만해튼 본당 교우여러분, 사랑합니다.'

김효석 신부

미동북부 꾸르실료사무국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재판관이라 할 지라도 즐라대며 매달리는 과부의 청은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과부는 재판관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부는 '올바른 판결'을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올바른 판결이란 하느님 뜻에 맞는 판결을 뜻합니다. 즉 과부는 재판관에게 하느님 뜻에 맞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이 내릴 만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청하는 이의 청원이 올바르면 그 응답도 합당하게 내려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간청해야 할 것은 올바른 판결입니다. 그러고보니 저야말로 삶 안에서 올바른 것을 간청하였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올바른 판결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공정하신 하느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치는 주님의 기도 역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청입니다. 간청하기에 앞서 먼저 하느님의 정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꾸르실료교육**

꾸르실료(Cursillo)는스페인어로 'curso' 영어로는 'course'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3박4일의 단기교정'을 꾸르실료 교육이라고 합니다. 꾸르실료 교육은 1930년대말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내전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하고, 가톨릭 신앙이 흔들리며 비그리스도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코비드 팬데믹으로 많은교우들이 성당을 외면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그리스도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10만명의 청장년을 산티아고에 있는 사도야고보성인의 묘소로 이끄는 순례여행을 계획했는데, 이때 이들을 도와줄 지도자들을 위해서 실시한 교육이 바로 꾸르실료교육이었습니다. 이교육의 효과가 기대이상으로 좋았기에, 이후 꾸르실료교육은 전세계로 전파되었고, 이곳 미동북부에는 1981년에도입되어, 지난 40년동안 약 3,300명의 교우들이 이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꾸르실료 교육을 수료한사람을 꾸르실리스따라고 부릅니다.

***울뜨레야(Ultreya)**

울뜨레야(Ultreya)는스페인어인데, '앞으로' '전진'이라는말입니다. 3박4일의 꾸르실료 교육을 수료한 교우들의모임을 말합니다. 꾸르실료 교육에서 받은 주님의 은총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신앙을 복돋아주고, 또한 꾸르실료 교육을 받을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꾸르실료교육의 내용과 참가자격**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나 주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지 못하는분, 신앙생활의 활력소를 찾으시는분, 어떻게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깨달아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싶으신분, 오랜 교회봉사로 지치거나 내적인고갈을 느끼시는분, 교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싶으신분, 전세계인이 받는 교육에대해 알고싶으신분,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안에서 살고자 하시는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꾸르실료교육이, 그분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후회없고 훌륭한 크리스천 봉사자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여러분께 감동적이고소중한 체험의 현장이 될수있도록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교황 바오로6세가 전세계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에게 하신말씀